

새로운 직업 향촌 진흥에 새 활력 주입

얼마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농업 농촌부, 귀주성인민정부에서 공동 주최한 제 2회 전국향촌진흥직업기능대회(이하 ‘직업기능대회’) 조직위원회 부주임을 맡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직업능력건설사 부사장 왕호군은 현재 이미 향촌 진흥과 관련된 13개의 새로운 직업을 개발했는데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 전자상거래, 민박관리사, 농사 정보에 대해 전부 인터넷 감독관리를 실현하게 하는 농업디지털화 기술원, 농림 순시작업 종사 무인기 조종원, 현대기업관리 리념으로 향촌 자원을 정돈 조를 최적화하는 농업경영관리 농촌자원관리 인원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하면서 “향촌의 새로운 직업은 취업의 새로운 하이라이트이며 향촌 진흥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금메달표 ‘농기계 의사’

이번 직업기능대회에서 전국 701명의 선수들이 축조, 농기계수리, 전자상거래 등 11개 경기 종목에서 치렬한 각축전을 벌였다.

농기계수리 학생조 금메달을 따낸 왕승용은 귀주성 펄절시 위녕이족회족요족자치현의 ‘00’후이다. 그한테는 어린시절 농사 짓는 부모를 따라 트랙토르 뒤머리에 앉아서 ‘툭툭툭’하는 파음이 들뜬에 울려퍼지는 것을 즐기던 기억과 트랙토르가 자주 고장이 나서 부모가 진땀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하며 그래서 커서 반드시 이 기계를 잘 파악해낼 것이라는 다짐이 컸다고 한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트랙토르, 곡물련합수확기 등 설비에 대해 고장 진단 제거와 기술 유지 보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심사 요점은 모두 실제 생산실현에서 온 것으로서 일상적인 농기계설비 문제의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된다.

농기계수리 종업원조 은상 수상자는 신강생산건설병관대표팀의 객진인데 그는 농기계수리 경기 종목의 유일한 녀선수였다. 신강 석하자기술직업학원의 교원으로서 그는 농기계와 16년간 교제했으며 장기간 농기계 전문교수, 농기계 직업기능 등급 훈련 등 일선 교수사업에 종사해왔다.

객진은 “이번 대회를 통해 농기계수리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 학생들이 우수한 ‘농기계 의사’가 되도록 교육을 계속 잘 수행하고 생산에서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여 향촌 진흥 전업기술 기반을 닦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업정보화부가 공동으로 발부한 <제조업 인재 발전계획 지침>은 2025년까지 우리 나라 농기계장비산업의 인재가 44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현재 많은 농지에서 300마력 이상의 대형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기계들을 다룰 수 있는 농기계수리 인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토 부족 면적이 크고 지능 농기계 응용 범위가 광범위한 신강은 기계화 정도가 이미 90%에 달한다. 허나 땅이 넓고 사람이 적다 보니 농민들은 농기계 한대를 수리하기 위해 먼길을 달려 농기계 판매회사에서 가서 판매용 서비스 인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알아본 데 의하면 많은 본과대학에 모두 농기계장비 관련 전공이 설치되었었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거의 전부 철수되었다. 2015년 교육부는 <일반고등학교 고등직업교육(전문과) 전공 목록(2015)>을 발간해 농업장비 응용기술, 농업전기화기술, 기계장비 제조기술 등 관련 전공을 설치했다.

중경삼협직업학원 자동차공정학원 교원 최성성은 기자에게 최근 몇년간 향촌진흥전략이 추진됨에 따라 농기계수리 인재의 사회 수요량이 늘어 많은 기업들이 판매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종업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많은 고급 직업대학원들은 시장 수요를 보고 분분히 농기계수리전공을 개설하였다고 말한다.

신강농업직업기술학원 교사 장쌍협은 현재 농기계수리학과 학생들의 취업은 ‘폭발’이라는 두 글자로 형용할 수 있다며 수요량이 많은 것을 보고 농기계수리학 응시자가 수직 상승했다고 말한다. “농기계수리 인재는 향촌 진흥에서 큰 전도가 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국가와 업계 발전과 공진하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인생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고학력자도 ‘미장공’이 될 수 있어

석사연구생 출신인 천진철도직업기술학원 교원 성신옥은 2년째 건축시공기술 관련 내용을 배우면서 좀처럼 자신이 선수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경기는 나한테 전공과 산업을 결합하는 다리를 놓아주었다. 더욱더 목표성,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을 기능인재로 성장하도록 인도하게 한다.”고 표했다.

장춘과학기술학원 교원 조몽몽은 한창 석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경기대회 양로간호종업원조 일원으로 경기에 참가했다. 그는 “교원은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직업기능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높은 수준만이 교수 일터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전자상거래 경기 종목에서 종업원조 동메달을 따낸 절강도로기사학원 교원 하평은 연구생 공부 과정에서 전문성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 규칙, 마케팅 전략을 더욱 깊이 파악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체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면서 “전문직 교사로서 교육연구와 기능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경기에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경공업직업기술학원 경제관리학원 전자상거래 전문교원 황단은 경기에서 휴대폰 생방송을 통해 신바람나게 당시 우수 특산품을 소개했다. 석사연구생 학력을 가진 황단은 향촌 진흥 라이브 방송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에 수차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리는 직업기능 경기를 통해 전문 능력을 단련받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향촌의 농부산물과 품도인정을 료해하고 당지의 경제 발전을 이끌기를 희망한다.”고 표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에서 이상적인 순위에 들지 못한 사천성 성도농업과 학기술직업학원 자동차교육연구실 강사이며 기계공정사인 소신충은 현재 많은 고급직업대학의 전업 교사들이 비교적 높은 학력과 비교적 튼튼한 리론기초를 갖고 있지만 기층에 가서 단

련한 경력이 부족하여 경기에서 늘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경기가 끝난 후 소신충은 학교의 지하에 사천전콩트락토르제조유한회사에 가서 단련받기로 했다면서 농기계수리 실제 조작 경험을 증강하여 ‘쌍사형’(双师型) 교사로 신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표했다.

축조종목 심판장 주과립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학력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소중한 시범 효과가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의 안중에 축조 프로그램은 땀을 흘려야 하는 힘든 일이지만 많은 일터는 인재에 대한 종합자질과 기능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표시, “경기를 통해 고학력 인재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돌아가서 종합자질을 갖춘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해 업계 발전의 수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직업이 큰 무대를 가져다준다

이번 직업기능대회 전자상거래 종목 학생부 금메달을 따낸 운남기사학원 동원정보산업학원 학생 췌성옥은 교정의 ‘스타’가 됐다. 21세의 그녀가 전국향촌진흥직업기능대회에서 운남성을 대표해 첫 금메달을 따냈으니 말이다.

운남기사학원에 오기 전 그녀는 ‘반향’였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첫 수업에서 제 45회 세계기능대회 이동로봇 경기 종목 우승자인 청년교사 정기원으로부터 격정적인 분투 경력을 들었는데 선생님의 장인정신은 그의 어린 가슴에 ‘기능보국’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했고 점차 나도 나라의 기둥이 되리라는 갈망을 갖게 했다고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을 깊이 학습한 후 나는 소용사와 등 고향의 농특산물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전국에 판매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고 췌성옥은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인터넷 기술혁신과 소비자 수요 다원화에 따라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인재에 대한 수요도 대폭 확장되고 있다. 이번 직업기능대회 전자상거래 종목 재판장 조리인 시용봉은 생방송 판매원, 생방송 내용 운영사, 생방송 장면 통제 운영사, 생방송 상품 품질 통제사, 생방송 고객서비스 등 생방송 전자상거래 영역의 인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왕성해지고 일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직업 수요량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췌성옥의 지도감독인 운남기사학원 교원 왕주평은 췌성옥의 성공은 학교, 기업의 협력 덕분이라며 학원의 일상수업은 전형적인 사업입무를 주선으로 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양성한다며 “기능은 인생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직업은 학생들에게 더 큰 무대와 더 나은 미래를 준다.”고 말했다.

인사부 관련 책임자는 향촌 진흥 관련 새로운 직업의 흥기는 향촌 경제사회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국가가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했다. 향촌진흥전략이 깊이있게 실시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관련 새 직업, 새 업태가 융솟솟쳐나와 향촌 발전에 더욱 많은 활력을 주입하게 될 것이다. / 신화넷

서란—장춘, 50 키로미터 단축된다



백기(白旗) 송화강대교 건설현장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7월말이면 국도 G229 서란시 백기 송화강대교 건설이 주체공사를 마칠 전망이다. 이대교가 건설되면 서란시에서 장춘시까지 근 50 키로미터의 로정을 단축하게 된다.

백기 송화강대교는 동쪽은 백기진 소가촌에서 시작돼 서쪽으로 송화강을 넘어 장춘시 구태구 기합목진 흥

기촌을 련결한다. 대교의 총 길이는 13.7 키로미터, 1급 도로 기준에 따라 건설하며 왕복 4차선, 로반 너비 24.5 메터, 설계 시속이 80 키로미터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중철대국국 그룹유한회사, 흑룡강성통건로교제 5공정유한회사에서 공동으로 청부, 설계 개산(概算) 투자는 7.8 억원이다.

국도 G229 선은 서란시와 장춘시

구태구 사이에서 송화강으로 하여 중단돼있어 이 지역 교통이 매우 불편했었다. 서란시교통국 관계자는 “백기 송화강대교 건설은 국도 G229 선을 관통하고 서란과 구태구를 련결해 두 지역의 도로 운송 능력을 향상시키고 두 지역간 경제 문화 교류를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전국 다국전자상거래 주체 12 만개 이상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다국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해외창고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의견>을 조속히 출범하도록 추동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나라의 다국전자상거래 무역 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은 5,776 억원으로 지난 동기보다 9.6% 증가, 그중 수출은 4,480 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전국 다국전자상거래 주체는 이미 12만개를 넘었고 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1,000 개 이상이며 건설한 해외창고는 2,500 개 이상으로 면적이 3,000 만평방메터를 초과한다. 그중 1,800 개 넘은 해외창고가 다국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몰두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2,200

만평방메터를 넘는다.

다국전자상거래는 우리 나라 대외무역 발전의 유생력량이자 국제무역 발전의 중요한 추세이다. 최근년간 다국전자상거래와 해외창고 등 신행 대외무역 인프라가 협동 련동하면서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성장 잠재력이 크며 견인 역할이 강하다. 상무부는 다음 단계에 관련 부문, 각 지방에 잘 력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 발전을 조력하여 우리 나라 165 개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에 의탁하고 각지의 산업 우세와 지역적 우세를 결부해 산업벨트의 더욱 많은 기업들이 다국전자상거래를 리용하여 국제 무역에 참여하도록 이끌며 주체 육성에 확대하고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

험구가 체인 주요 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지도하며 상하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개조를 선도한다.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에 관한 전문 훈련을 조직하여 능력 건설, 교류와 참고를 강화하며 다국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현장회의를 소집하여 전행사례와 경험 교류를 강화하고 업종의 자를 수준을 제고하며 질서 있는 경쟁을 인도한다. 또한 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 상호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자유무역협정 등 사업기제 하에 다국전자상거래 의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업종, 기업의 적극적인 국제 교류, 협력 전개를 지지할 방침이다.

/ 신화넷

료식업 시장에 부는 ‘국조’풍

‘국조’ 특색 료식문화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4월 전국 료식업 수입은 1조 7,360 억원으로 지난 동기 대비 9.3% 성장한 가운데 개성적이고 전통문화의 운치를 담은 ‘국조’ 료식 소비열이 부단히 증가되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새로운 체험을 가져다주고 있는 추세이다.

남경시의 <홍루몽>을 주제로 한 모식당에서 《<홍루몽>에서 아주 자상하게 묘사한 료리인 가지살튀김(茄条)을 한번 먹어볼 수 있으면 참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는 관광객의 말이 떨어지기에 바쁘게 식당의 복무원이 가지살튀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 식당의 인력 자원총감 만금림은 “우리의 료리 창의성은 모두 <홍루몽> 원작을 깊이 파고들어 환원하며 일정한 정도에서 혁신을 진행하여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기자한테 말해준다.

최근년에 신중식 음식이 빠르게 흥기하여 신중식 식당, 신중식 차음료, 신중식 베이킹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개성적이고 전통문화의 운치를 담은 ‘국조’ 미식은 갈수록 많은 세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대중평론’ 플랫폼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조’ 키워드의 검색량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조간식’, ‘신중식’ 등이 비교적 주목받고 있으며 ‘신중식 차음료’, ‘신중식 케이크’의 검색량이 지난 동기보다 5배가량 증가되고 ‘국조’, ‘신중식’ 관련 음식을 출시한 음료점은 전년 동기 대비 11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조리협회 등 단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료식기업 발전보고서>는 료식업계가 소비 수요와 관념의 급속한 전환, 심각한 시장경쟁의 동질화, 기술의 급속한 교체 등 3대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지적, ‘국조’ 미식을 연구 개발하는 것은 일부 료식 기업이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했다.

중식 료리 고급기술자 동전상은 중식 료리는 전통문화에서 영감을 찾는다 고 표하면서 료리 혁신은 우리 나라 전통음식문화를 견지하는 것과 소비의 추세를 통찰하는 것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경 ‘도향촌’회사에서는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융합시킨 중식 제과를 내놓아 인기를 끌고 있다. 도향촌 0 호점 프로젝트 책임자 조사원은 “전통문화를 융합시키면 과자는 단지 하나의 식품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기호로 되며 력사의 무게를 담아 동양의 미학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산둥대학 경제학원 교수 왕진광은 신중식 미식은 문화 원소와 융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세대의 수요도 만족시켜야 하는바 전통문화와 현대 소비 수요의 결합점을 정확하게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 장면 혁신, 관련 산업과의 융합 발전

“가게에 들어서면서부터 천년을 넘나들며 궁중 레절 문화를 느끼는 것 같았다”, “전통 가구를 감상하면서 미식을 맛보는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상해의 한 식당에서 시민 장월이 흠족해 말한다.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9개 부문이 련합으로 발부한 <료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은 료식 소비 장면을 혁신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지도의견>은 중화의 우수한 료식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료식 소비 잠재력을 한층 더 방출시키며 료식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야간음식, 레저 음식, 문화관광 주제 음식 등의 발전을 권장하며 료식과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로 볼 때 이를테면 장식 풍격에서 전통문화를 료식 공간 설계

에 융합시켜 독특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북경의 한 건축설계회사 책임자는 올해 들어 회사 설계 주문의 80%가 ‘국조’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다.

소프트웨어로 볼 때 료식 공간에 그림곡, 희곡, 민속기에 등 중국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상성, 상호작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료식과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료식 ‘문화관광 + 미식’, ‘전시공연 + 미식’ 등 활동을 전개하면서 료식업종이 도시의 경제 번영을 촉진하고 실물경제 발전에 조력하고 있다.

새로운 성장점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한 신중식 차음료점에서 차 한잔이 자동제조기를 통해 완성되고 차판기 등 지능화 설비의 도입으로 제작 효율, 제품 표준화를 보장해주어 고객에게 더욱 좋은 소비 체험을 제공해준다. 또 회원 시스템 등 디지털화 도구의 응용으로 브랜드가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포착하게 함으로써 정밀화 운영을 실현하고 사용자의 애착도를 증강시킨다...

‘국조’ 료식업은 영양과 건강을 추구하고 디지털 능력화 등 큰 추세에 순응해야 한다. 오늘날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의 실용가치외에도 소비 체험에 큰 관심을 돌린다. 료식업은 반드시 서비스 의식을 높여야 한다.

중국호텔협회 회장 진신화는 “료식업은 료식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적극 구축하고 국산 ‘조품’ 등 새 소비 성장점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료식 서비스의 품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우수한 료식문화를 전승 발전시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신화넷

무역외환수지기업 명부 등기, 6월부터 은행서 직접 처리

국가의외환관리국의 무역외환업무관리를 한층 더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에 따라 6월부터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이 무역외환수지기업 명부 등기를 심사비준하던 것을 취소하고 경내 은행에서 직접 명부 등기를 처리한다. 우리 성에서는 이미 13개 화물무역기업이 직접 은행을 통해 명부 등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다국간 무역 편리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

어떤 기업이 명부 등기를 해야 하는

가? 명부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진실한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수요를 가진 기업, 확실히 객관적으로 화물무역 외환수지 업무를 전개해야 하는 기타 경내기업 또는 개인공상업자는 명부 등기를 해야 한다. 작은 기업과 련세 다국전자상거래기업이 전자정보에 의거하여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할 때는 명부 등기를 면제할 수 있다.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첫 수지를 처리하기 전에 경내

은행에서 명부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화물외환수지 기업 명부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 ‘디지털 외환관리 플랫폼’ 은행단을 통해 기업명부 정보를 기입하고 기업에 관련 업무 관리자 사용자 코드와 초기 비밀번호를 발급한다. 기업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명부 등기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 길림일보